

03

March 2025  
vol. 283

#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ring has come!

TOD'S





DIOR

MY DIOR COLLECTION

온라인 부티크, [Dior.com](http://Dior.com)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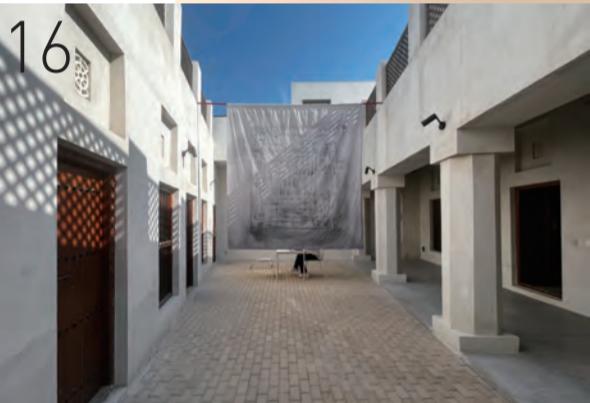
MARCH 2025 / ISSUE.283

**08\_SELECTION 1** 핑크를 더해 더욱 우아하게.

그녀의 모카 무스 아이템 활용법.

**10\_SELECTION 2** 모카 무스를 베이스로 한  
스프링 컬러 매치 제안.**11\_TIME TO START** 첫출발의 설렘과 꿈을 안  
은 젊은 그대에게.**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  
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14\_30년 넘는 여성 속 공고히 자리 잡은 예술  
의 메카** UAE의 '문화 수도로' 여겨지며 3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거듭하고 있는 사  
르자 비엔날레가 올해로 16회를 맞아해 4개  
월 넘는 여정을 펼친다(2. 6~6. 15).**16\_‘샤르자’ 브랜드를 세상에 각인시킨 변화의  
리더십** 20대 초반에 미술계에 등장한, 샤르  
자 비엔날레를 이끌어가는 후루 알 카시미는  
샤르자 비엔날레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차근  
차근 끌어올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17\_ARTIST IN FOCUS** 샤르자 비엔날레는 자  
신만의 작업을 해나가는 작가들과 손잡고 2  
백 점 넘는 신작 커미션(올해 기준)을 내놓는  
것은 물론 협업 과정에서 별별적인 소통이 이  
뤄졌다는 평을 받는다. SB16에 신작 커미션  
작품을 선보인 한국계 작가 2인을 만나봤다.

20



03 | Style  
주간일보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티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  
(Tod's)가 2025 S/S 시즌,  
정제된 럭셔리와 탐험스한  
우아함을 담은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 가벼운 가포  
스킨과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을  
강조한 디아이 풀리오 백  
(Di Bag Folio)과 창인 정신을  
결합한 최상급 소재의 패쉬미  
(Pashmy) 보며 재킷을 제안한다.  
문의 02-3448-8233



#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인 stylechosun.khy@gmail.com, 윤지경 yjk@chosun.com 디자일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ns@chosun.com 이정희 j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18\_Meet the artist** 찬 세상의 올림 김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 Kim)은 소리를 비정각적·정  
치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 뉴욕  
 хр몬티 미술관 개인전 <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2. 8~7. 6)에서는 드로잉, 벽화,  
영상, 설치 등 작업 90여 점을 선보인다.

**19\_CHECK WRIST** 남녀 모두 착용하기 좋은  
브레이슬릿 컬렉션.

**20\_GET THE LIST**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당  
신을 위한 특별한 제안.

**22\_ESSENTIALS FOR HIM** 이번 시즌 내내  
함께하고 싶은 메인 패션 하우스의 감각적인  
남성 백과 슈즈.

**23\_INTENSE ELEGANCE** 메종이 재해석한  
팬더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팬더 드 까르띠에.

**24\_2025 S/S TREND REPORT** 그 어느 때  
보다 아자립고 복잡했던 2025 S/S 컬렉션. 여  
러 트렌드가 혼재한 이번 시즌은 마치 지금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듯하다.

**26\_THE SPOTLIGHT** 이탈리아 비치(beach)  
파티에서 영감받았다. 나른한 듯 분방한, 쉬  
이 시선을 떼 수 있는 후간 2025 S/S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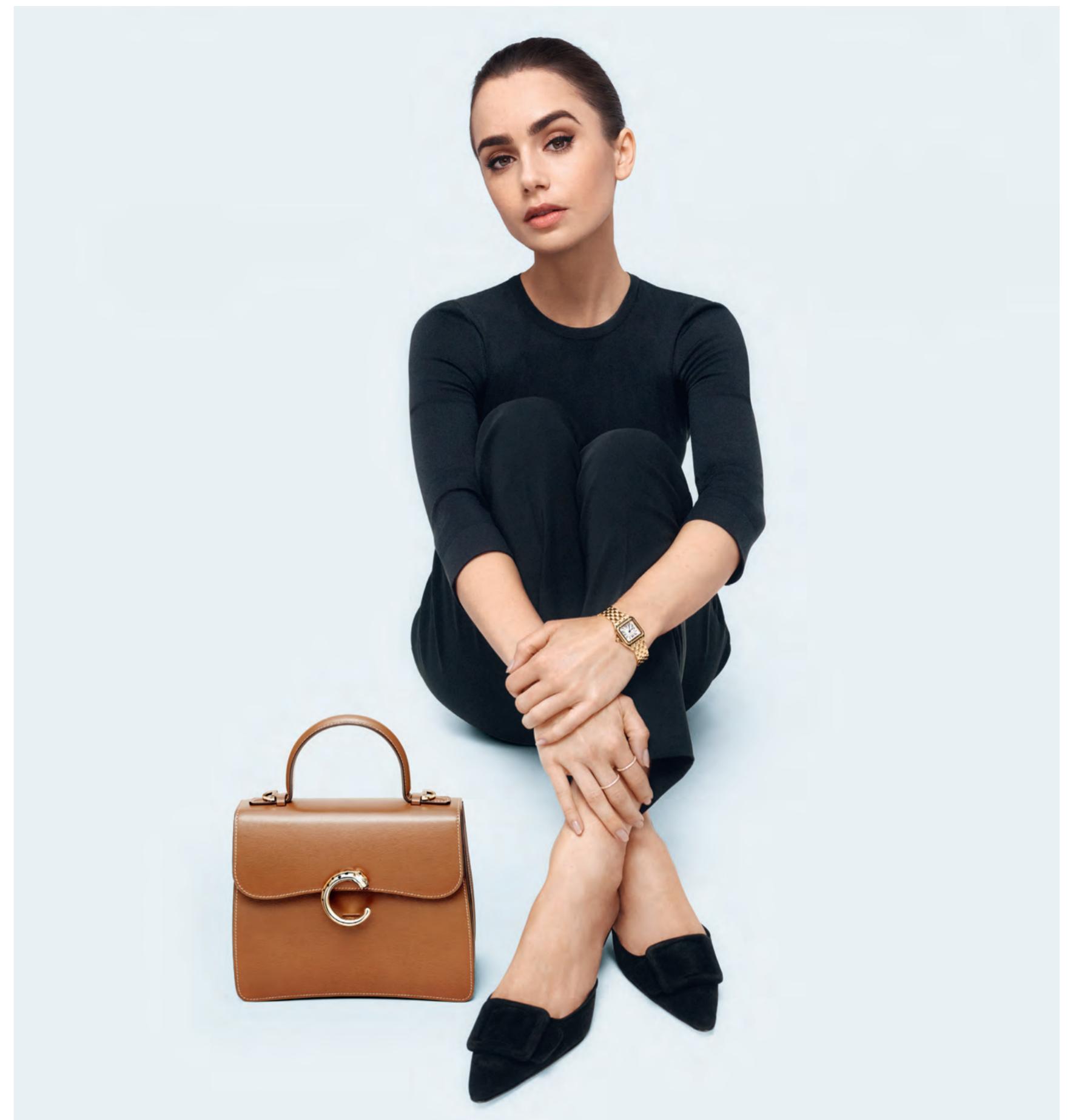
**27\_TIME OF VICTORY** 올림픽 타임카퍼 오메  
가는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을 선보이며 또 한번 이 순간을 기념한다.

**28\_OH, MEN!** 스타일리시한 그 남자의 봄, 실  
루엣과 프린트에 주목할 것.

**36\_SCENTS OF SPRING** 매서운 바람 뒤에  
한층 극적이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봄 향수.

**37\_LUX FOR SKIN** 궁극의 스킨케어 리추얼을  
선사하는 샤넬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케  
어, 수블리마지 리안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

**38\_EDITOR'S PICK** 출시되자마자 위치 리스  
트 0순위를 자처하는 뷰티 아이템 10.



PANTHÈRE  
DE  
Cartier



GRAFF



## for him Selection

모카 무스를 베이스로 한 스포팅 컬러 매치 제안.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로로피아나 02-6200-7799  
에르메스 02-542-6622  
스티븐 웹스터 02-2231-1592  
그라프 02-2256-6810  
에실로록스토리 02-501-4436  
토즈 02-3438-6008  
브라이틀링 02-792-4371  
피아제 1668-1874  
MCM 1600-1976  
마르니 02-772-3233  
메종 마르지엘라 02-772-3234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에트로 02-3446-1321  
토미 02-539-8160

페이즐리 자카드 패브릭으로  
완성한 트래블 백.  
45x31x24cm, 2백95만원  
에트로.

에디터 선정업 스타일리스트 임현영

(위부터 차례대로)

IWC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2 지름 42.4mm  
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실버 도금 다이얼로  
우아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전하는 위치.

2개의 배클을 통해 무려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IWC 자체 제작 52011 칼리버 우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8백50만원. 문의 1877-4315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퍼스트 오메가 인 스페이스

우주 비행사 월터 시리가 미션 수행 시 착용한 위치를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39.7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그레이 블루  
다이얼, 빈티지 슈퍼루미노바® 인덱스가 세련된

감성을 전한다. 1천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태그豪이어 카레라 크로노그래프 아이코닉한

카레라 디자인에 선레이저 브러싱 처리한 스모키

파플 다이얼이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9mm 케이스에 매뉴팩처 칼리버

TH20-00 오토매틱을 장착해 특별함을

더했다. 9백75만원. 문의 02-548-6021

피아제 풀드 그린 에메랄드 컬러 다이얼이

매력적인 42mm 사이즈 스틸 케이스 모델.

슈퍼루미노바® 인덱스와 핸즈로 남성들이  
사랑하는 디테일을 모두 갖췄다. 피아제 자체

제작 1110P 기계식 셀링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1백만원. 문의 1668-1874

불가리 옥토 로마 둥근 곡선이 돋보이면서도  
완전한 라운드 디자인으로 규정되지 않는

독특한 팔각형 케이스가 개성을 부여한다.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클루드 파리

마감 기법이 돋보이는 앤트러사이트 다이얼이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며, 최대 1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1천30만원. 문의 02-6105-2120

브라이틀링 내비파이어 오토매틱 GMT 41 파일럿  
위치의 감성을 가득 담은 다이얼의 아이코닉한

슬라이드 룰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크로노그래프를  
과감히 생략해 한층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스카이 블루 다이얼과 메탈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매력적. 9백49만원. 문의 02-792-4371

파네라이 루미노르 퀘란토 퍼플포 메탈 브레이슬릿  
세컨드 타임존을 표시하는 GMT 기능을 갖춘

위치로 흠태임과 현지 시간대를 주목하는 데  
용이하며 블루 슈퍼루미노바®를 적용한 핸드는

어둠 속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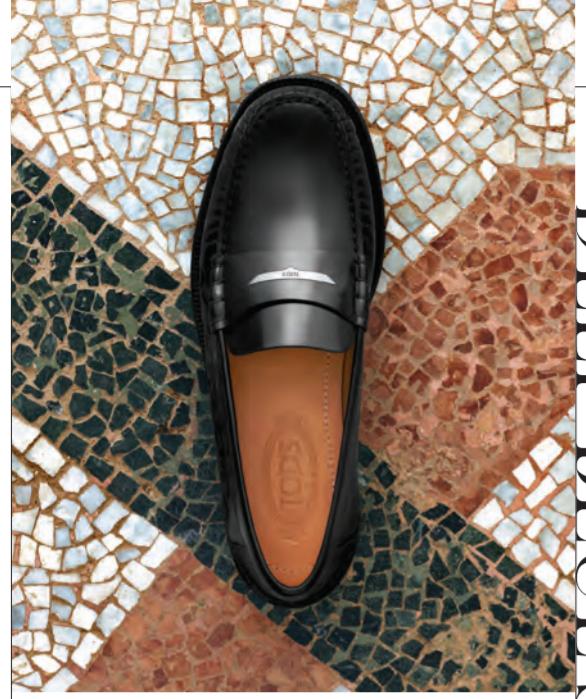
1천3백만원대. 문의 02-1670-1936

에디터 성정민

# Time to Start

첫출발의 설렘과 꿈을 안은 젊은 그대에게.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 DEEP BLUE SEA

### Step On

남자의 고상한 기품이 느껴진다. 토즈 바포(Baffo) 로퍼는 1970년대 아이비 리그에서 유행한 로퍼에서 영감받은 클래식한 디자인, 개더링 디테일과 손으로 촘촘히 퀘맨 스트itch가 특징이다. 페니 로퍼 스타일로 실제 동전을 끌어 넣을 수 있는 스포트를 메탈 플레이트로 대신해 트렌디한 면모도 놓치지 않았다. 이 디자인은 콧수염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바포'는 이탈리아어로 콧수염을 뜻한다. 신발 바닥부터 옆 라인까지 모두 1장의 레더로 제작하는 까다로운 듀블리 공법을 적용해 견고하지만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1백39만 원. 문의 02-3438-6008

신비한 푸른빛 다이얼을 매치한 워치 3. (위부터 차례대로) 에거 르클트르 뉴오미터  
원팀 러너 42.5mm 블루 그레이던션 세터형 다이얼에 고급스러운 알리기터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한 멋까지 느낄 수 있을 것.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6  
천4백50만원. 문의 1877-4201 론진 콘퀘스트 38mm 큐빅스트 컬렉션 탄생 70  
주년을 맞이해 탄생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블루 다이얼이 만나 청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백10만원. 문의 02-3479-1940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 43.6mm 블랙 컬러의 히아테크 세라믹 소재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그리고 선베스트 블루 다이얼의 조화은 섬세함과 간신히 매력을  
모두 자냈다. 3천7백20만원. 문의 02-3479-1833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Shape Sensation

그 누가 완전한 원의 형태를 정의했을까? 에르메스 컷(Hermès Cut)은 완전한 원도, 각진 사각도, 육각 혹은 팔각도 아닌 에르메스만의 감성을 불어넣어 독특하게 커빙한 매끄러운 원형 실루엣의 기하학적 테마가 돋보이는 시계다. 정교한 제스처로 그려낸 날카로운 라인은 에르메스의 클래식함과 모던함, 그리고 세련미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기 때문. 일반적인 워치와 달리 1시 30분 방향에 대담하게 위치한 크라운뿐 아니라 레커 마감과 인그레이빙 H 디테일 등 아이코닉한 에르메스 워치 스타일을 증명한다. 스틀 또는 스틀 및 로즈 골드 소재에 디아이몬드 없는 버전, 56개의 디아이몬드를 배젤에 세팅한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에르메스 컬러 팔레트를 참고한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으로 교체해 더 다채로운 룩을 즐길 수 있다. 에르메스 워치만의 독창성과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갖춘 것은 물론 에르메스 매뉴팩처 무브먼트 H1912로 작동해 에르메스 워치만의 기술적 노하우도 듬뿍 담았다. 평균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542-6622



### 결국은 화이트

새 시즌 개주얼부터 포멀한 룩까지 두루 어울리는 가방 하나를 추천한다면, 최상의 선택지는 바로 샤넬 플랩 백이다. 클래식한 컬러를 잘 활용하는 샤넬답게 블랙 파이핑 디테일이 퀼팅드 화이트 럼 스킨 소재를 견고하게 감싸 모던하면서도 남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골드 체인은 우아한 속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화이트 특유의 깨끗하고 절제된 미학은 블랙보다 담대하고 핑크와 블루보다 고급스러운 더욱 막강한 이유가 없다. 심플한 룩에 별다른 디테일 없이도 특별함을 더해줄 최고의 액세서리는 단연 샤넬 백이 아닐지.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 Couture Touch

디올의 하이 주얼리는 디올 아틀리에의 쿠튀르적 디테일과 섬세함이 녹아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감정을 전한다. 이번에 아티스틱 디렉터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은 레이스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디올 밀리 덴탈(Dior Millie Dentelle) 컬렉션을 선보이며 디올 하우스의 하이 주얼리 디자인에 더욱 풍성한 매력을 불어넣었다. 크리스천 디올의 밀리 라포레에서 영감받아 화사한 꽃이 풍성하게 피어난 몽환적인 풍경, 비대칭 곡선을 그리는 나뭇잎, 무성한 수풀 등으로 풍부한 자연을 표현하며 매혹적이면서도 유쾌한 세계를 주얼리로 승화시킨다. 화이트·옐로우·핑크 골드에 컬러풀한 젠스톤과 진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팅한 76피스의 특별한 하이 주얼리로 출시했다. 문의 02-3280-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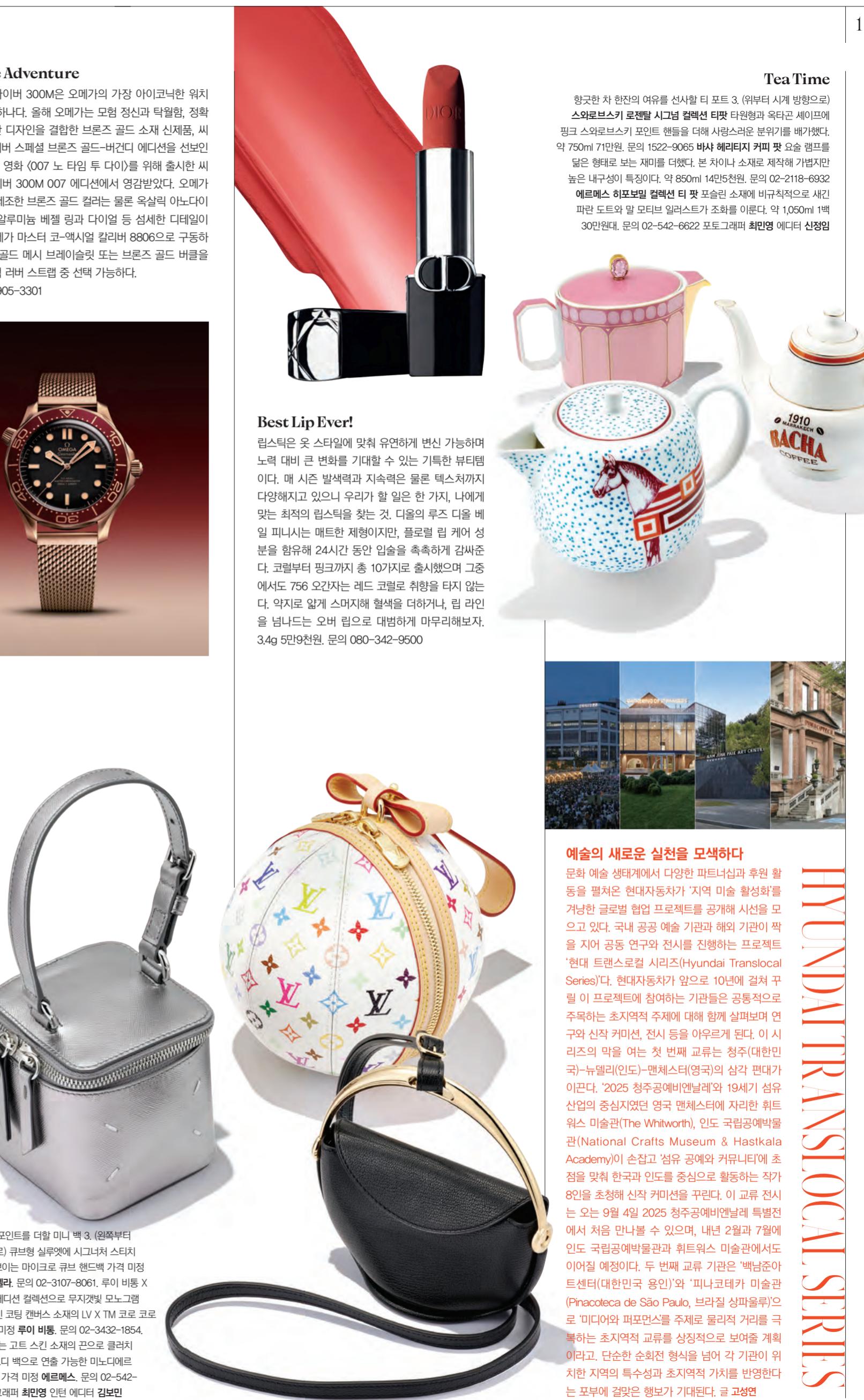


### Bronze Adventure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은 오메가의 가장 아이코닉한 워치 컬렉션 중 하나다. 올해 오메가는 모험 정신과 탁월함, 정확성에 특별한 디자인을 결합한 브론즈 골드 소재 신제품, 씨마스터 다이버 스페셜 브론즈 골드-베건디 에디션을 선보인다. 2020년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를 위해 출시한 씨마스터 다이버 300M 007 에디션에서 영감받았다. 오메가가 특별히 제조한 브론즈 골드 컬러는 물론 육살릭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베젤 링과 다이얼 등 섬세한 디테일이 매력적. 오메가 마스터 코-에시얼 칼리버 8806으로 구동하며, 브론즈 골드 메시 브레이슬릿 또는 브론즈 골드 버클을 장착한 블랙 러버 스트랩 중 선택 가능하다. 문의 02-6905-3301



### SIZE MATTERS



미니멀 룩에 포인트를 더할 미니 백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큐브형 실루엣에 시그니처 스티치  
디테일이 돋보이는 마이크로 큐브 핸드백 가격 미정  
메종 마리지엘라. 문의 02-3107-8061. 루이 비통 X  
무라카미 리에디션 컬렉션으로 무지갯빛 모노그램  
모티브를 입힌 코팅 캔버스 소재의 LV X TM 코로 코로  
클러치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틸착할 수 있는 고트 스킨 소재의 곤로 클러치  
백,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 가능한 미노디에르  
잉 퍼스트 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  
662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김보민

### HYUNDAI TRANSLOCAL SERIES

Tea Time  
향긋한 차 향자의 여유를 선사할 티 포트 3.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와로브스키 로제탈 시그널 컬렉션 티팟 타원형과 옥타곤 세이프에  
핑크 스와로브스키 포인트 핸들로 더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배가했다.  
약 750ml 71만원. 문의 1522-9065 바샤 해리지 커피 팟 요술 램프를  
닮은 형태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본 차이나 소재로 제작해 가볍지만  
높은 내구성이 특징이다. 약 850ml 14만5천원. 문의 02-2118-6932  
에르메스 허포보밀 컬렉션 티팟 모슬린 소재에 비규칙적으로 새긴  
파란 도트와 말 모티브 일러스트가 조화를 이룬다. 약 1050ml 1백  
30만원. 문의 02-542-662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예술의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다

문화 예술 생태계에서 다양한 파트너십과 후원 활동을 펼쳐온 현대자동차가 '지역 미술 활성화'를 견인한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를 공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내 공공 예술 기관과 해외 기관이 짹을 지어 공동 연구와 전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Hyundai Translocal Series)'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꾸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공동으로 주목하는 초지역적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연구와 신작 커미션, 전시 등을 이어오게 된다. 이 시리즈의 막을 여는 첫 번째 교류는 청주(대한민국)-뉴델리(인도)-맨체스터(영국)의 삼각 페어가 이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와 19세기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국 맨체스터에 자리한 휴트워스 미술관(The Whitworth), 인도 국립공예박물관(National Crafts Museum & Hastkala Academy)이 손잡고 섬유 공예와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인을 초청해 신작 커미션을 꾸린다. 이 교류 전시는 오는 9월 4일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에서 처음 만나볼 수 있으며, 내년 2월과 7월에 인도 국립공예박물관과 휴트워스 미술관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교류 기관은 '백남준아트센터(대한민국 용인)'와 '파나코테카 미술관(Pinacoteca de São Paulo, 브라질 상파울루)'으로 미디어와 퍼포먼스를 주제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초지역적 교류를 상장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라고, 단순한 순회전 형식을 넘어 각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과 초지역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포부에 걸맞은 행보가 기대된다. 글 고성연

SB16\_샤르자 비엔날레  
(Sharjah Biennial) 2025: to carry

# 30년 넘는 여정 속 공고히

to carry a story; to carry a wound; to carry a trade; to carry a chest; to carry a distance; to carry a library of reduced documents; to carry a Poem; to carry (meaning); to carry a change; to carry songs; to carry on; to carry land; to carry the language of the inner soul; to carry new formations; to carry the embrace of a river current; to carry a sisterhood and communal connection; to carry the rays of a morning without f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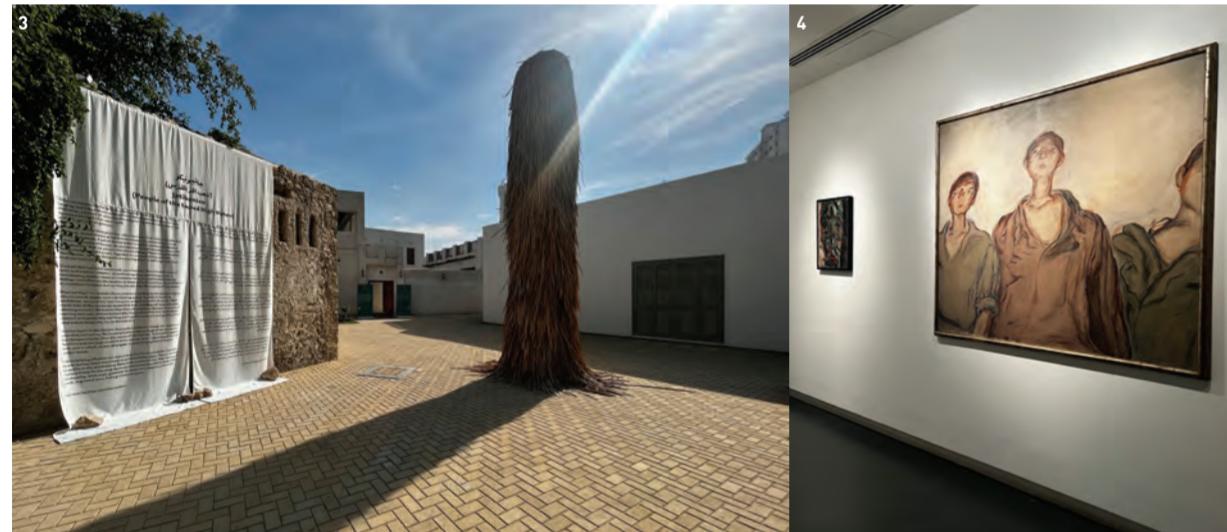


## # 도시의 심장부를 수놓은 문화 예술 지구

흔히 '중동'이라 불리는 지역과 그 문화권을 나름 제대로 접한 건 꽤 오래전 두어 차례 찾은 '두바이 아트 위크'에서였다. 아트 페어란 '미술 작품을 사고파는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행사를'라고는 해도, 이를 계기로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당시 아랍 문화권을 엿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서구에 경도된 시각과 자식을 지니고 있는지, 심지어 심미안에도 영향을 받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됐다. '중동'이라는 표현은 서유럽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당신이 페르시아의 고원 지대에 서 있다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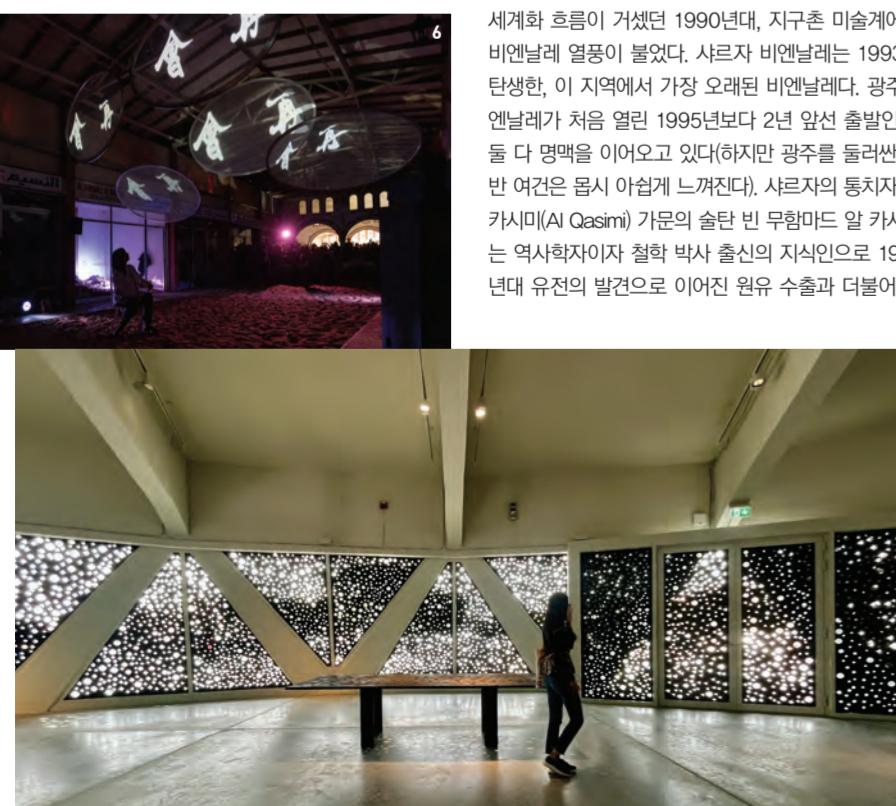
른바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중서가 된다.' 탐 안 사리(Tamim Ansary)라는 학자의 저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단초는 두바이였지만 어쩌면 이 지점에서 더 흥미로운 렌즈를 장착하게 된 전개는 샤르자에서 이뤄졌다. 마지막 두바이 체류에서 샤르자 비엔날레(SB13)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를 '비엔날레 산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교통 체증이 없으면 두바이에서 자동차로 20~30분이면 샤르자에 도착할 수 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물길을 건넜는데 이윽고 당도한 샤르자 도심(Sharjah City)의 비엔날레 주 전시장에 단

1 올해 16회를 맞이한 샤르자 비엔날레 2025(SB16)의 주제인 'to carry'를 담은 키 비주얼 이미지. 큐레이터는 5명(Alia Swastika, Amal Khalaf, Megan Tamati-Quennell, Natasha Ginwala, Zeynep Öz)이다.  
2 UAE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중심부에 있는 문화 예술 지구. Courtesy Sharjah Art Foundation.  
3 일 무렵에 자 스웨어에 자리한 작품. 호세 곤잘레스 산토스 (Jorge González Santo),



번에 반했던 기억이 있다. 두바이와는 달리 낮은 스카이라인 속에 모래색 건축물에는 비엔날레를 꾸리는 조직인 샤르자 미술재단(이하 SAF) 본부와 더불어 캘리그래피 광장, 샤르자 아트 뮤지엄 등이 자리하고 있다. 5명의 큐레이터가 함께한 올해 비엔날레(SB16)의 주제는 'to carry'로 2백 명 넘는 다국적 작가가 참여했는데, 신작 커미션만 2백 점이 넘는다.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사랑하는 비엔날레인 이유가 있다.

## # 옛 장터와 학교, 그리고 비행접시 닮은꼴… 다채로운 공간



'Internal Embrace', 2023-2025.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4 Marwan Kassab Bachi, 'Three Palestinian Boys', 1970, Oil on canvas, 130x162cm.  
5 Citra Sasmita, 'Timur Merah Project XV: Poetry of The Sea, Vow of The Sun', 2024.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Calligraphy Museum, Sharjah, 2025.  
6 홍콩 출신 작가 엘린 파우 (Ellen Pau)의 퍼포먼스 'Terroir'(2024). 커미션 작품. Courtesy the artist and Kiang Malingue Gallery, Hong Kong. Performance view: Sharjah Biennial 16, Old Al Jubail Vegetable Market, Sharjah, 2025.

통을 수호하고 문화를 끌어오는 데도 초점을 맞춰왔다. 그 여정에서 샤르자 비엔날레가 탄생했지만 지도상 '반방'에 있는 현대미술 행사의 내실과 더불어 브랜드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건 미술 유학파인 솔탄의 딸 후르 알 카시미(Hoor Al Qasimi)이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친의 프로젝트에 합류했지만(2002년)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도 갖춰 변화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국제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면 한시적 운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09년 SAF를 설립한 것도 바로 후르 알 카시미(대표이자 디렉터를 맡고 있다). 조직을 갖추고 교육, 강연, 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확대하면서 비엔날레의 규모도 점차 키워나갔다(작가들의 작업실도 많다). 과거 채소를 팔던 시장 건물이라든지 폐교 건물, 도서관 등 샤르자시의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들을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다. 생생한 전시 콘텐츠로 채운 교실은 물론이고 마당에서는 일렉트릭 연주가 펼쳐지는 학교(Al Qasimiyah School)나 비행접시를 닮은 1970년대 건축물인 플라잉 소서(The Flying Saucer)를 수놓는 설치 작업의 오락은 틀에 박힌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난 공간 특유의 감흥을 선사한다.

# 자리 잡은 예술의 메카

'샤르자(Sharjah)'라는 고유명사를 접하면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게 어디냐?"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을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는 면적(2,590km<sup>2</sup>)이 서울시의 4배 정도 되지만 UAE 국토에서는 지분이 아주 적고(3.3%), 인구가 성장세를 타고 있는 하지만 2백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는 UAE라고 하면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 토후국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현대미술 애호가라면 '샤르자'라는 단어에 반색하는 경우가 많다. 큰 형님 격인 아부다비가 '행정 수도'로 중심을 잡고 있고, 두바이가 '무역·관광 수도'로 각광받는다면, 샤르자는 '문화 수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일찍이(1998년) 샤르자를 '아랍의 문화 수도'로 지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현대미술 생태계에서 아랍 문화권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존재감을 뽐낸다. 3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거듭하고 있는 샤르자 비엔날레가 올해로 16회를 맞이해 4개월 넘는 여정을 펼친다(2.6~6.15).



## # 모래 둑덕과 사막에 펼쳐지는 고요한 세레나데

샤르자시 중심부의 멋스러운 건물들은 물론 도심에서 멀지 않은 역사적 공간도 있지만 장소성이 부각되는 이색적인 풍경과 어우러지는 '설치 미술'을 비엔날레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외딴 공간도 있다. 올해 비엔날레의 경우, 작품 수가 6백 50여 점, 전시장(venue) 수가 크게 17개로 나뉘어 샤르자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다. 물론 전방위적인 비엔날레 투어는 녹록지 않은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하고, 작업과의 조우가 잘 이뤄졌을 때 놀라울 만큼 깊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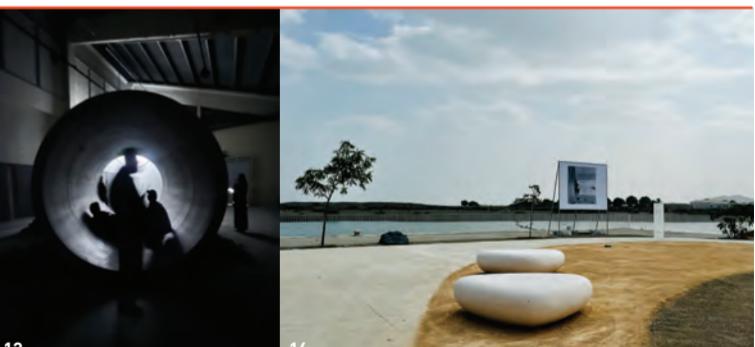


험도 재미다. 2022년 부산비엔날레에서 주목받은 메건 코프(Megan Cope)의 패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조각은 부하이스(Buhais) 지질학 공원에서 전시되고 있는데,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건축물이 바위에 둘러싸인 이 공원에서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여기에는 페포먼스의 운지까지 더해졌다). 올봄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성황리에 마친 이집트 작가와 웰 샤키의 작품도 '아랍 문화권'에서 보니 더 반가웠다. 또 샤르자 지도를 펼쳐놓았을 때 중간 지대에 자리한 'Buried Village'에 설치된 빛의 가시로 두른 의자

를 형상화한 조각 'Brier Patch'(2022)도 그런 사례다. 원래는 뉴욕 매디슨 스퀘어 파크의 커미션 작업인데, '유령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황량한 모래 둑덕으로 웠다. 올해 처음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쓰였다는 이 쓸쓸한 둑덕은 미국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교육에의 장벽'을 뜻한다는 그의 작업과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영구 설치로 남을 예정으로, 작가의 말처럼 시간과 함께 변해갈' 모습이 궁금해진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더 석이 밝고 단단해질지도 모르겠네요."

## # 바다의 숨결을 느끼며 다음을 기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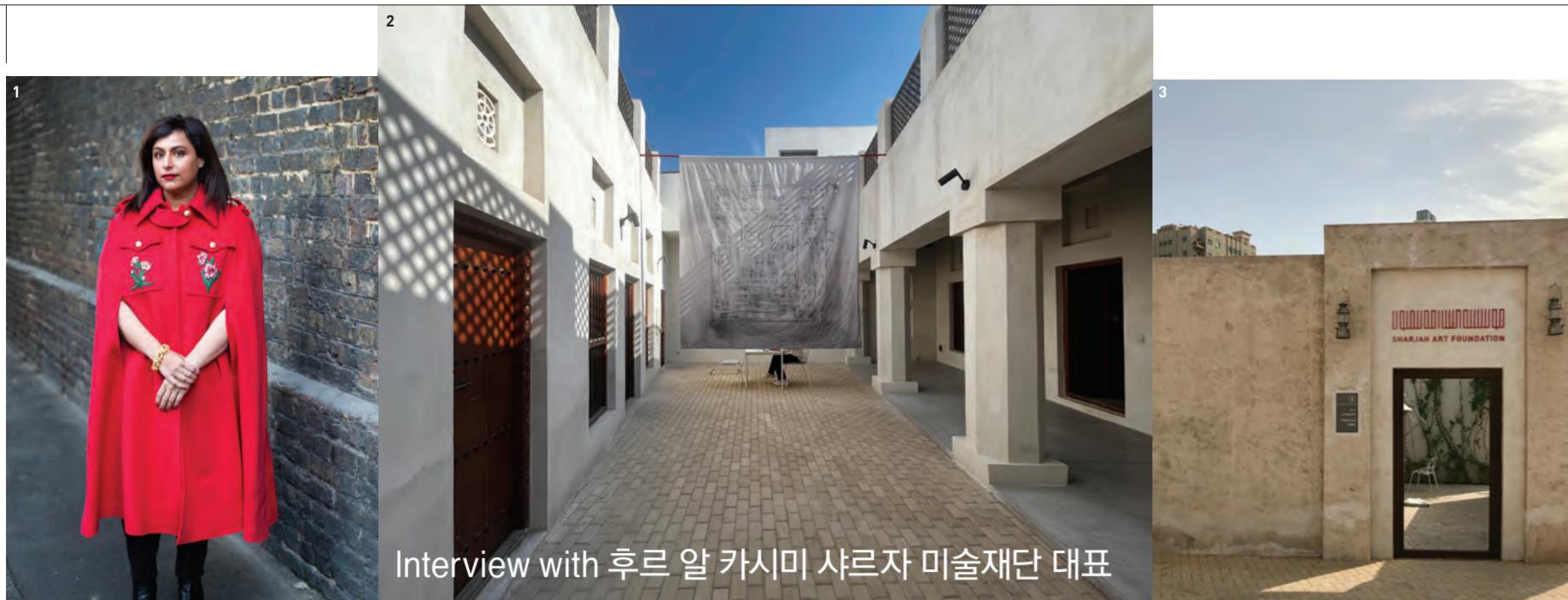
오프닝 주간이 아니더라도 'March Meeting', 'April Acts'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샤르자와 가까운 서쪽 해안과 왕복 3시간 넘게 소요되는 동쪽 끝 바닷가에도 비엔날레가 어어지니 말이다. 후르 알 카시미 대표의 설령대로 아라비아페르시아만에 걸쳐 있는 알 할리야(AI Hamriya) 스튜디오와 인도양을 향하는 옛 암릉 공장인 칼바 아이스 팩토리(Kalba Ice Factory)가 바로 그



련 전시장인데, 솔직히 밤파 파는 게 아깝지 않았다. 크고 작은 신작 커미션 작품도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는 데다 기존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과 재단 소장 품과의 양상들도 흥미롭다. SAF는 1920년대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기간에 걸친 소장품을 1천 점 넘게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한 작가의 작업을 반드시 한 공간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공간에서 선보이는 경우도 있어 '찾기'의 재미도 쓸쓸하다. 이번 비엔날레는 큐레



이터가 5명이다 보니 산만한 강도 없지 않지만, 동시에 다각적인 해석의장을 열어놓은 'to carry'라는 전시 주제처럼 풍부하기도 하다. 결국 예술을 감상한다는 건 나의 해석으로 체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에 'to carry' 다음에 붙은 명사의 뜻은 저마다 달라질 테고 말이다. 아마도 올해 오프닝 주간에 진행된 프레스+작가 투어에 거의 매일 수백 명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몰린 이유가 아닐까(첫 주간 비엔날레 방문객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로 샤르자 지역민들도 찾고 즐기는 축제로 성장해나가려면 많은 관문이 필요할 것 같다. 두바이로 출퇴근하는 몇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된 샤르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물론 후르 알 카시미의 말에 동의한다. "(그래도) 우리에겐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느냐." 글 고성연(샤르자 현지 취재)



Interview with 후르 알 카시미 샤르자 미술재단 대표

## ‘샤르자’ 브랜드를 세상에 각인시킨 변화의 리더십

영국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 리뷰〉는 해마다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파워 100’을 발표하는데, 최근 순위에서는 샤르자 비엔날레(Sharjah Biennial)를 이끌어가는 후르 알 카시미가 1위에 올랐다. 해당 연도를 전후한 활동량과 횟수에 따라 순위는 오르내리기 마련이지만 샤르자를 비롯해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미술계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띠기는 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왕족 출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르 알 카시미는 확실히 다른 결의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1980년생으로 불과 20대 초반에 미술계 전면에 등장한 그녀는 샤르자 비엔날레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차근차근 끌어올리며 세간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피해 가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기획자’로도 ‘리브콜’을 받으며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후르 알 카시미가 어린 시절 진지하게 품은 장래 희망은 ‘요리사였다. 사방이 책으로 가득한 샤르자의 집무실에서 만난 그녀는 “지금도 요리를 즐겨 하느냐”는 질문에 배시시 웃었다. 사실 샤르자 미술재단(SAF)이 들어선 예술 지구의 알 무레이자(Al Mureejah) 광장에는 양중맞은 펫말을 입구 앞에 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 데, 바로 그녀의 작품이다. 올해 샤르자 비엔날레(SBI6) 오프닝 때 프레스 행사의 만찬 장소이기도 했던 ‘펜(Fen Café & Restaurant)’. 그간의 방문자들이 매겨준 높은 평점만큼이나 실제로 맛도 준수한 컨템파리리 레스토랑으로 그녀가 메뉴 개발에도 참여한다고, “처음에는 세프를 꿈꿨고, 그다음에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 미술 선생님이 아티스트 자질이 풍부하니 미술학교에 가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하셨죠.” 그리하여 후르 알 카시미는 영국 런던의 미술학교 슬레이드에 진학한다(나중에는 RCA에서 현대미술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졸업한 이듬해인 2003년, 그녀는 당시 탄생한 지 10년 된 샤르자 비엔날레의 공동 예술감독을 맡았다. UAE 토후국 샤르자를 이끄는 알 카시미 가문의 젊은 딸이 비엔날레 감독이거나, 호사가들이 입장에 착수가 좋은 소재였다.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과 그래도 불거지는 호기심이 공존했음을 물론이다. 필자는 당시의 비엔날레를 보지 못했지만 행사가 무사히 치러졌음에도

많은 이들은 공주님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리거나 남더라도 굳이 실무를 하지는 않겠지 하는 편견을 지녔던 것만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모국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축제에 ‘진심’이었다. 마루거리는 커녕 2009년 SAF를 설립하면서 샤르자 비엔날레의 격을 끌어올리고 내실을 다지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글로벌 무대를 누비는 예술감독으로의 성장

애초에 기획자이자 리더로서의 노선을 백한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슬레이드 시절에도 그녀는 뉴 미디어 전시를 공동 기획하는 등 아티스트들에게 ‘전시 공간을 꾸며주고 기획을 할 때 보람과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계기는 1972년부터 샤르자를 통치하고 있는 부친인 H. H. 세이크 솔탄 빈 무함마드 알 카미와 2002년 함께 찾았던 독일 카셀의 현대미술 축제 도쿠멘타였다. 당시 나이지리아 출신의 큐레이터이자 시인인 오쿠이 엔웨조(Okwui Enwezor)가 예술감독을 맡았던 도쿠멘타11은 기존의 유럽+백인+남성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난 전환점으로 평가되는데, 후르 알 카시미에게도 엄청난 영감으로 다가왔다.

“팔레스타인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다국적 작가들이 참여하고 국가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축제 현장이었죠. 저는 ‘우리에게도 비엔날레가 있지 않나. 우리도 이런 기조로 꾸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를 계기로 그녀는 오

1 SAF 설립자이자 대표 후르 알 카시미(Hoor Al Qasimi, 1980년생으로 사르자 비엔날레, UAE 관, 라흐르(Lahore) 비엔날레 등 글로벌 비엔날레 큐레이터를 역임했으며 올가을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 내년 시드니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았다. 이미지 제공: 아이치 트리엔날레 Photo by SEBASTIAN BOTTLER

2 싱가포르 출신의 사진작가이자 영상 작가 존 클링(John Clang)은 올해 샤르자 비엔날레에서 중국 전통 운명학자 자미우수를 활용한 퍼포먼스인 ‘Reading by an Artist’를 선보였다.

샤르자 비엔날레의 초창기 운동 차트로 그려보기도 했는데 ‘세상과 다르게 갈 길을 가는 독립성이 보였다고’ 말했다.

3 SAF 입구 4 후르 알 카시미 대표의 커리어 여행에 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큐레이터 오쿠이 엔웨조(Okwui Enwezor). 비서구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카셀에서 열리는 저명한 현대미술 행사인 도쿠멘타(2002)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019년 별세했다.

Photo by Chika Okeke-Agulu



쿠이 엔웨조의 인연을 쌓게 되고 2018년에는 샤르자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그를 초청했다. 흔쾌히 승낙했지만 이미 몸이 아팠던 그는 2019년 작고했다. 별세 전 그는 후르 알 카시미에게 비통을 넘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회의도 많이 한 상태였고, 그는 매우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는 ‘네가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제게는 그게 유인 같은 거였죠.’ 그렇게 후르 알 카시미는 오쿠이 엔웨조의 뜻다 한 창조적 비전을 이어받았는데, 팬데믹 여파로 결국 이 전시는 샤르자 비엔날레 개최 30주년인 2023년(SBI5)에 열렸다. 주제는 비서구권의 동시대 미술을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Thinking Historically in the Present’.

이제 그녀는 샤르자의 젊은 상징 같은 존재다. 명실공히 세계적인 미술 행사로 자리매김한 샤르자 비엔날레의 위상을 발판으로 그녀는 ‘큐레이터’로서의 역량도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내년 시드니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았고, 가깝게는 올가을 일본 아이치(Aichi) 트리엔날레에서 또 다른 결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마 60 차례도 넘게 일본을 방문했을 거예요. 아이치도 첫 비엔날레 때 그냥 구경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싶었죠.” 일본에 대해서는 언어를 배웠고 덕분에 문화도 더 친숙해졌다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글 고성연(샤르자 현지 취재)

## #사유를 품고 나래를 펼치는 매혹의 조형, 제이디 차(Zadie Xa)

현대미술가 박찬경의 만신 김금화를 내세운 작업을 접한 적이 있다. 어째서 토속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그가 쓴 글이 담긴 도록 봤는데,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가톨릭 집안의 고층 아파트 주민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 특히 전통 종교 문화는 애초부터 낯선 것’이라는 대목에서 ‘공감’ 어린 고개를 끄덕이다 결국엔 ‘우리 것에 대한 외면을 자성하게 됐다. 특히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엄숙한 얼굴로 떠오르고, 결국 치우지 않은 돌에 걸려 넘어지듯 언젠가 후회하게 될 그런 것”이라고 했던 대목에서. 흥미롭게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나고 자란 제이디 차(Zadie Xa, b. 1983)는 우리 다수가 일삼아온 전통에의 외면을 곱씹어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민자 2세로 자리면서 정체성을 고민했던 그녀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민담, 설화, 전설 등을 접하고 매혹됐는데, 훗날 작가로서 그에 영감받은 캐릭터를 작품에 등장시킨다. 예컨대 스페인스K 서울에서 열렸던 개인전 〈구미호 혹은 우리를 호리는 것들〉에서 구미호를 미묘한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할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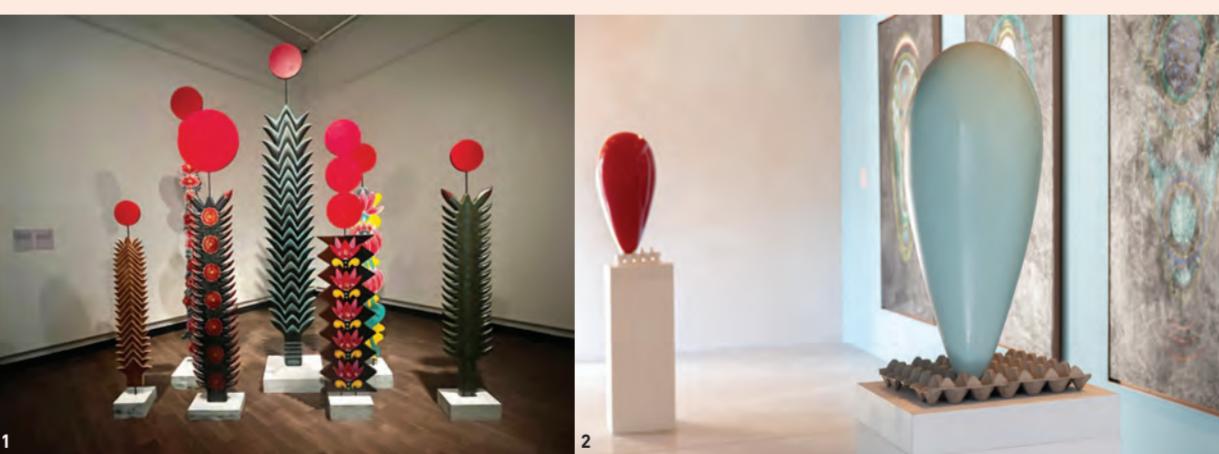
1 샤르자 비엔날레(SBI6) 오프닝 주간에 알 힘리야(Al Hamriya) 스튜디오에서 만난 제이디 차 작가와 그녀의 신작 회화 작품. 2 Zadie Xa with Benito Mayor Vallejo, ‘Moonlit Confessions Across Deep Sea Echoes: Your Ancestors Are Whales, and Earth Remembers Everything’, 2025. Courtesy of Thaddaeus Ropac.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Al Hamriya Studios, Sharjah, 2025. Photo by Danko Stjepanovic

니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전 부적처럼 행운을 가져다준거나 보호해주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샤르자에서 만난 제이디 차는 1천 개의 황동으로 만든 종(bells) 설치 작업을 가리키며 “액을” 막아주지만 동시에 장난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적 샤머니즘이 익숙하지 않았을 환경에서 자란 제이디 차는 어제서 이런 주제에 주목하게 된 걸까? 그녀는 30대 초반에 본 김기영 감독의 〈이어도〉(1977)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영화 속 무속인 캐릭터는 K-컬처 같은 대중문화에서 접하는 가녀린 동양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국 여자들을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회화를 할 때는 인물을 비롯해 그녀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구상으로 선보인 데 반해, 이번 비엔날레에는 한동안 작업을 힘들어하다 벤쿠버 여행에서 영감받아 완성했다는 아름다운 추상 회화도 첫선을 보였다. 봉황적 색조의 회화 조각, 사운드 작업이 어우러진 그녀의 전시 공간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

## Artist in Focus

작금의 비엔날레의 홍수 속에서 서구 중심의 현대미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을 소개하겠다는 포부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누군가의 우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샤르자 비엔날레의 강점은 자신의 작업을 해나가는 작가들과 손잡고 2백 점 넘는 신작 커미션(올해 기준)을 내놓을 정도로 풍부한 콘텐츠, 그리고 협업 과정에서 별별적인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이 나온다는 점이다. 비엔날레 오프닝 주간에 큐레이터, 작가, 저널리스트 등이 생태계에 속한 여러 영역의 다국적 관계자들이 도심과 사막, 해안가를 수놓은 다양한 전시 공간을 오가면서 서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SBI6에 신작 커미션 작품을 선보인 한국계 작가 2인을 만나봤다.

### #일상성과 우리네 ‘승고’가 맞닿는 지점들, 김상돈(Sangdon Kim)



베를린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한 김상돈(b. 1973) 작가는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한다.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장인들과 협업하고 워크숍도 진행하며 지식과 내공을 쌓았다. 일부러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연결 고리를 찾는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체득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풀어놓는다. 그가 지난 2021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담아낸 신작 ‘행렬은 진도의 전통 장례 문화인 ‘다시래기’를 모티브로 삼았고, ‘카트’는 세심하게 만든 남도 꽃상여를 실제

1 김상돈(Sangdon Kim), ‘Forest’, 2024.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Calligraphy Square, Sharjah, 2025. Photo by Ali Alfaidy

2 Sangdon Kim, various works from ‘Egg that has spent the night’, 2022-2023.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Bait Al Serkal, Sharjah, 2025. Photo by Danko Stjepanovic

로 마트 같은 쇼핑 공간에서 쓰는 카트 위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당시 공식 후원 업체인 이탈리아 섬유 기업이 제공한 슈퍼가 내장재로 쓰이는 고급 원단에 ‘지옥’에서 온 부적을 과감히 그려 넣었다. 팬데믹이 지구의 일상을 강타한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치유를 불러오는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유쾌하게 벼루려낸 작품들이다. 우리 조상의 근원에 맞닿아 있고 한국인의 영혼에 내재된 샤머니즘은 그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렇듯 카타르시스를 불러오는 운 위트가 곁들인 설행이 돌아온다. 글 고성연

대안적 방안이 된다. 올해 샤르자 비엔날레에서는 꽃상여가 아니라 ‘단장을 활용한 형형색색의 나무 조각으로 구성된 ‘숲(Forest)’이라는 신작 커미션 작품을 선보였다(샤르자 문화 예술 지구에 자리한 캘리그래피 뮤지엄 소재). 알록달록한 색조가 절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업 역시 작가의 연구에서 비롯된 창조물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전시장(Bait Al Serkal)에 소개된 김상돈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알이 보낸 밤(Eggs that has spent the night)’(2022-2023)이라는 제목의 유리공에 작품 시리즈다. “저는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형적인 심벌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알’로 표현된 거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서는 알 모양의 항아리로 무덤을 만들기도 했어요.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커다랗고 매끄러운 알에서 느껴지는 뭔가 ‘기복적인’ 염원은 그 받침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슈퍼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달걀판에 알이 스스럼없이 서 있는 모양새라니. “자본주의 체계에서 우리의 거대한 기억을 다시 요리해서 먹을까?”라는 그다운 위트가 곁들인 설행이 돌아온다. 글 고성연



뉴욕 휘트니 미술관 김 크리스틴 선 &lt;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gt;

## 메아리로 가득 찬 세상의 울림

“소리를 반드시 귀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촉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개념으로 여길 수도 있죠.”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김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 Kim)은 자신의 2015년 TED 토크 <매혹적인 수화의 음악>에서 설명했듯 소리를 비청각적·정치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그녀의 모국어는 미국 수어(ASL)다. 작가는 수어와 음성언어, 소리의 관계를 탐구하고, 여기에서 불거지는 소통의 복잡성을 다룬다. 그 바탕에는 작가, 아민자, 어머니, 그리고 데프 커뮤니티(Deaf Community)를 대변하는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세상과 소통해온 시간이 담겨 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개인전 <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2. 8~7. 6)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작한 드로잉, 벽화, 영상, 설치 등 작업 90여 점을 선보이며,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그녀만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전시는 먼저 눈으로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벽에 그려진 사선과 음표가 공간에 더하는 소리 없는 운율을 마주하게 된다. 일반적인 악보와 달리, 작가의 오선은 미국 수어의 표현을 따라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어에서 악보의 오선은 엄지손가락을 접은 채 나머지 네 손가락을 얼굴 앞에서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작으로 표현되며, 4개의 선을 공간에 남긴다. 벽면을 부유하는 음표들은 이 선에 살짝 걸쳐 있거나, 달지 못한 채 여백을 떠도는데, 이를 실제 연주로 옮기다면 들릴 듯 말 듯 미세한 소리가 날 것이다. 작품명 ‘고스트 노트(Ghost(ed) Notes)’(2024)는 본래 ‘영화한 음 높이가 없어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 음’을 뜻하는 동명의 용어에서 따왔다. 작가는 아주 작게 연주되어 거의 리듬으로만 존재하는 이 소리를 ‘고스팅(ghosting, 별다른 실명 없이 갑작스레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과 연결 짓는다. 이처럼 들리지 않는 음표로 구성된 악보는 청인 중심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개인적 경험을 반영한다. 동시에,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암시하기도 한다.

### 공간적 언어, 음악과 수어가 전하는 이야기

김 크리스틴 선 작가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음악 기보법을 차용해 소리를 그림으로 기록하거나, 미국 수어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형태를 조형화하는 식이다. 이번 뉴욕 휘트니 미술관 전시의 중심이 되는 메아리(Echo) 연작은 후자에 해당한다. 메아리는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용어로, 반사된 소리가 다시 전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소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소통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수어 통역을 거치는 작가의 소통 과정에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시간차와 반복은 의미가 반향되어 전달되는 메아리와 유사한 구조를 띤다. ‘지금 제 통역사 베스(Beth)도 제가 하는 말을 메아리처럼 반복해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도 수어

1 뉴욕 휘트니 미술관 8층에서 진행 중인 김 크리스틴 선의 전시. ‘Ghost(ed) Notes’(2024)가 그려진 양 벽 사이로 형태적 캔버스 작업 ‘All Day All Night’(2023)이 전시돼 있다. Photo by David Tufino 2 층 전시장은 벽화 ‘Prolonged Echo’(2023)와 ‘Long Echo’(2022) 연작 등이 공간을 가득 채워 크고 작은 메아리가 관객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Mural: ‘Prolonged Echo’, 2023. From left to right: Long Echo, 2022; Long Echo, 2022. Photo by Ron Amstutz 3 미국 수어(ASL)에서 얼굴 표정과 손동작이 어떻게 결합되어 연작을 형성하는 팀을 ‘Tables and Windows’(2016)는 파트너 토마스 마더와의 협업 작품. Installation view of Soundtracks (SFMOMA, San Francisco, July 15, 2017–January 1, 2018). Christine Sun Kim and Thomas Mader, Tables and Windows, 2016. Collection of the artists, courtesy SFMOMA, François Ghebaly Gallery, and WHITE SPACE. Photo by Katherine Du Tiel

### 4

층

전시장의 ATTENTION(2022) 설치 모습. Christine Sun Kim and Thomas Mader, ATTENTION, 2022. Photo by Ron Amstutz 5 ‘Degrees of Deaf Rage’(2018) 연작. 소리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사회에서 작가가 겪어온 상황을 인포그래픽 차트로 나타낸 드로잉으로, 일상에서 축적된 분노의 정도를 각도로 변환해 제시한다. 예컨대 여행 중 비행기의 영화에서 자막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180도의 분노(Straight up Rage)로 나타내는 등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Photo by David Tufino

※ 1, 2, 3, 4, 5 Installation View of 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February 8–July 6, 2025). 이미지 제공, 휘트니 미술관



5

로 메아리칠 거예요. 우리 사이의 공간에는 이런 메아리들이 존재해요.” 수어에서 메아리치는 소리의 파동은 반사면을 형성하듯 수직으로 세운 손바닥에 다른 손의 네 손가락이 달게 한 뒤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멀어지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작가는 이러한 손동작의 궤적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전시장 하나를 가득 채웠다. 공간을 짊어삼킨 듯 커다란 메아리에 작은 메아리들이 반복적으로 중첩되며 다시 하나의 거대한 메아리를 이룬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인포그래픽 또한 문화적, 인어적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을 위해 작가가 애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목단과 오일 페스털로 그린 드로잉 작품들은 도보도박 적힌 손 글씨, 재료의 번짐과 얼룩, 줄을 그어 실수를 수정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더 친밀하게 다가온다. 형모별로 적힌 작은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과정은 보다 큰 침중력과 정성을 요구하는데,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이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작가의 경험에서 비롯된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Shit Hearing People Say to Me’(2019), ‘Degrees of Deaf Rage’(2018) 등 작품명에 글 김연우(뉴욕 통신원)

등장하는 냉소 섞인 문구는 유머로 희석되었지만, 그 안에는 데프 커뮤니티가 겪어온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이 담겨 있다이 커뮤니티는 청각 장애 유무로 특징짓는 게 아니라 ‘미국 수어’라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대문자 ‘D’를 사용해 ‘Deaf’로 표기한다).

김 크리스틴 선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독일 출신 작가로 그녀의 파트너이기도 한 토마스 마더(Thomas Mader)와 협업해 완성한 ‘ATTENTION’(2022)은 주목을 끌거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수어 동작에서 착안한 키네тика 조각으로, 선풍기로 작동하는 양팔이 힘 없이 움직이며 부단히 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을 담았다. 중앙에 놓인 바위의 표면은 이들의 복잡적 시도 끝에 점차 닳아가며, 지속적인 노력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이끌어내는 변화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작은 울림일지도라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존재한다. 메아리치는 세상에서 그것들이 언젠가 더 큰 울림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 Check Wrist

남녀 모두 착용하기 좋은 브레이슬릿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그리프 라운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총 5.4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며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해 데일리로 착용하기 제격이다.

4차6백76만원, 문의 02-2256-6810

포엘라토 품풀닷 브레이슬릿 한쪽 면에는 총 0.2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른 쪽 면에는 화이트 데미오브릴을 세팅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불가리 비제로원 뱅글 브레이슬릿 고대 로마의

클로세움에서 영감받아 탄생했으며 우아한 무드를 선사하는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나선형 디테일을 더하고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파베 세팅했다. 2차9백50만원, 문의 02-6105-2120

피아제 포제션 오른 뱅글 브레이슬릿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개의 디테일이 브레이슬릿 양쪽에서 자유롭게 회전해 모던함을 부각한다.

2천4백만원대, 문의 1668-1874

다미애니 베이포크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담아 남녀 누구나 착용 가능하다. 18K 로즈 골드 소재로 완성해 우아한 멋을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미니 브레이슬릿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퀄팅 모티브가 특징으로, 다른 브레이슬릿과 다양하게 레이어드하기 좋다. 18K 화이트 골드와 총 1.28캐럿 다이아몬드의 심플한 조화가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티파니 티파니 랙 네로우 뱅글 시장하는 이와의 악속을 상징하는 자물쇠를 모티브로 한 뱅글로

모던하고 도회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18K 엘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가 조화를 이루며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기미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에디터 윤자경

# Get

# The

# List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제안.  
PHOTOGRAPHED BY YIJU HYUK



# Essentials For Him

이번 시즌 내내 함께하고 싶은 메인 패션 하우스의 감각적인 남성 백과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환경과 인류의  
조화를 생각하며 미래 지향적, 기술적  
혁신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 회사 MAD  
와 샬비아 벤투리니 팬디의 대화에서  
탄생한 스몰 피카부 아이 씨 유 백  
1천만원대, 스포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MAD와의 협업 제품인 라버 셀  
디테일의 슬림 온 스니커즈 1백만원대  
모두 팬디. 문의 02-544-1925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간치니  
클래스프가 2개 달린 넓은 가죽  
스트랩으로 가방을 깁싸는 듯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해마드 카프  
스킨 소재의 허그 브리프케이스  
3백65만원, 베를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카프 소재의  
허그 베를 하이브리드 스니커즈  
1백19만원, 감각적인 블루 컬러감이  
돋보이는 스웨이드 간치니 오-并不意味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가격 미정 모두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디테일을 기미해 영한 감성을  
자아내는 LV X 탐버랜드 앵클부츠, 바렌  
듯한 모노그램 패턴과 콤비네이션 디자인  
조화를 이루는 스티머 30, 하우스의  
클래식한 스티머 백의 실루엣을 메신저  
백 스타일로 풀어내 활용성을 더한  
스티머 크로스 보디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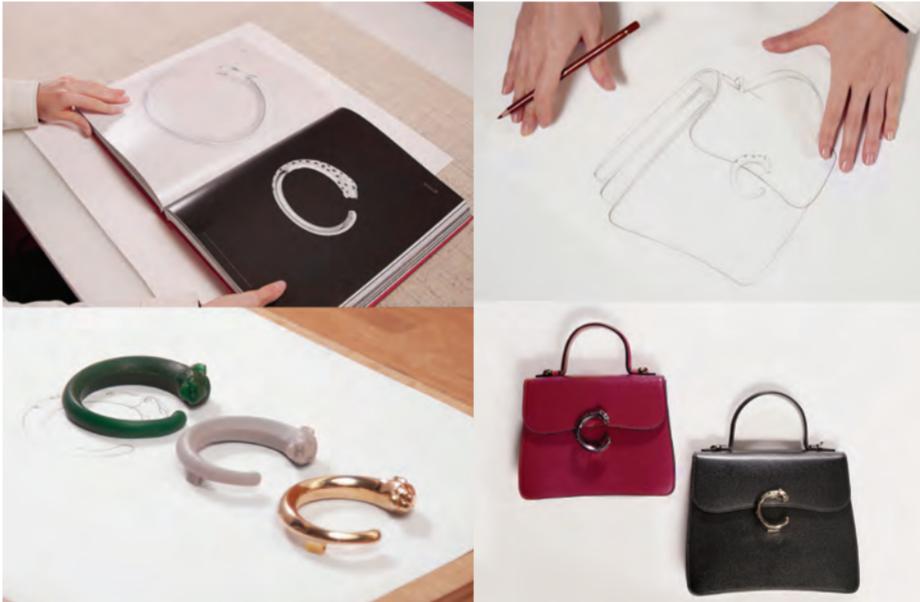


이시티 김민수



## Intense Elegance

사다리꼴 보디, 섬세한 그레인 레더, 그리고 잔느 투상의 유산을 일깨우는 주얼리 잠금장치까지. 메종이 재해석한 팬더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팬더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잔느 투상은 1940년대 팬더를 자신의 시그너처로 선택했다. 그녀는 대담하고 매력적인 팬더 조각을 만들어냈고, 이는 화날 오랜 시간 동안 까르띠에 주얼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 아이코닉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아티스틱 디렉터 말린 유슨(Marlin Yusion)이 이끄는 액세서리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고귀하고 우아한 까르띠에 팬더 백 제작에 돌입한다. 잔느 투상 팬더 주얼리의 디테일과 아름다움을 담고자 까르띠에 아틀리에의 하이 주얼리 조각가와 협업했으며, 팬더 백의 보디를 완성하는 특별한 송아지가죽을 선별해 완성했다. 이로써

1 체리 레드 송아지가죽의  
팬더 C 드 까르띠에 스몰 톱  
핸들 백. 2 블랙 스몰 사이즈  
톱 핸들 백. 3 디크 그린  
컬러에 화이트 골드 및 블랙  
에나멜 잠금장치를 매치한  
미니 사이즈 핸들 백.  
4 페일 핑크 컬러에 화이트  
골드 잠금장치로 완성한  
미니 톱 핸들 백.



까르띠에만의 고귀함과 우아함을 극대화한 아이코닉한 팬더 백이 탄생할 수 있었다. 까르띠에 팬더 백은 최상의 송아지가죽으로 제작된다. 이 가죽을 세척해 태닝을 거치고 이후 여러 단계로 이뤄진 기능적 공정이 진행되면서 가죽에 팔멜라토(Palmelatto)라 불리는 물결치는 그레이 효과를 더한다. 이 그레이 텍스처와 은은한 광택은 매우 섬세한 장인 정신이 요구되는 작업이며 팬더 백을 더욱 고귀하게 보이도록 하는 초석이 된다. 여기에 팬더 백에 가장 아이코닉한 포인트를 더할 버클을 장착하면 완벽한 팬더 백이 완성된다. 팬더의 머리를 뱃길 형태의 잠금장치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사실적이고 순수한 느낌은 물론 독보적인 입체감을 부여한다. 또 백의 모든 부분에 생기 넘치는 팬더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부속품을 모두 핸드 폴리싱해 더욱 세련되고 반짝이는 아트피스로 탈바꿈시켰다. 까르띠에는 이러한 팬더 백 제작에서 역시 지속 가능성 원칙과 관행을 고



사진 © Cartier

# 2025 S/S Trend Report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이동까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복잡했던 2025 S/S 컬렉션.

## Metallic Power

시즌 쇼는 유독 눈이 부셨다. 반짝이는 스팽글이나 시퀸 소재가 쇼 곳곳에서 등장했기 때문. 프라다는 이에 알루미늄이나 철을 사용한 듯 메탈릭한 느낌의 스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AI, 가상현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패션 트렌드라 볼 수 있다.

어찌면 럭셔리와 컨템퍼러리 브랜드의 경계가 모호해져가는 현 패션 신에서 오랜 노하우와 장인 정신으로만 탄생할 수 있는 오트 쿠튀르적 의상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을 듯하다. 특히 베리에서 화려한 스팽글 드레스에 스포티한 점퍼를 매치한 것도 흥미로웠다.



TREND 1



TREND 2



TREND 3

TREND 4



BOTTEGA VENETA

TREND 5

CHANEL

## Neo Bourge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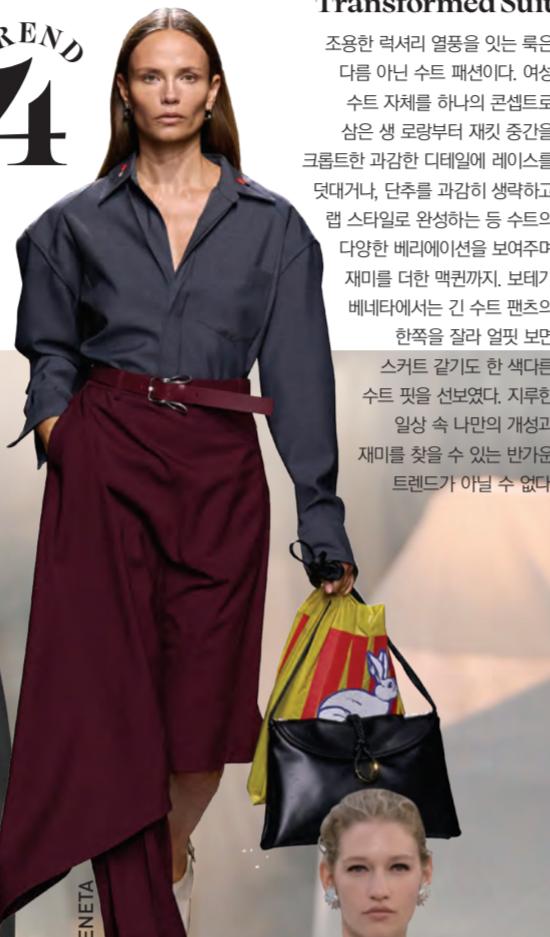
1970년대 부르주아들이 즐겨 입던 화려하고 과장된 패션이 다시금 메인 스트리트에 등장했다. 한동안 이어진 미니멀한 웃자김에 지쳤다면 시대적 터치를 가미한 새로운 네오 부르주아 트렌드가 반기울 수밖에 없을 듯. 과감한 스타일과 화려한 터치가 주 무기인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발렌티노에서 선보인 첫 쇼가 대표적. 화려한 러플, 무시 보 등을 그만의 방식으로 자유자제로 활용해 부르주아 룩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세리나 카밀리가 합류한 끝에 역시 보헤미안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선보였다.

## Layered Elegance

도래하면서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것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패션이 되었다. 올해 역시 이러한 레이어드 패션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조금 소스너스했던 무드에서 엘리건트한 무드로 바뀌었는지 특징. 펜디와 디올 등에서는 시스루 드레스에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매치해 우아한 실루엣으로 팬츠와 스커트를 레이어드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나이, 체형을 불문하고 꼭 한번 도전해볼 것.

FENDI

TREND 6



TREND 7

ROMANTIC FEATHER

이번 시즌에 등장한 또 다른 소재는 깃털이다. 1960~70년대 귀족들의 헤어 장식으로 쓰인 깃털이나 셀럽들의 레드 카펫 혹은 파티 룩에 간혹 등장하는 화려한 깃털 룩은 조금 다르다. 로에베와 샤넬에서는 아주 작은 깃털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거나 신체 일부분에만 사용해 아주 여성적이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프라다는 오간자 소재에 깃털을 한 편 한 편 붙인 드레스를 깃털의 기배움을 표현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 깃털들은 이번 로맨티시즘 트렌드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 매개체임에 틀림없다.

## Transformed Suit

조용한 럭셔리 열풍을 있는 룩은 다른 아닌 수트 패션이다. 여성 수트 자체를 하나의 컨셉트로 심은 생 로랑부터 재킷 중간을 크롭트한 과감한 디테일에 레이스를 덧대거나, 민족을 과감히 생략하고 렙 스타일로 완성하는 등 수트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보여주며 재미를 더한 맥퀸까지.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긴 수트 팬츠의 한쪽을 절라 알맞 보면 스커트 같기도 한 색다른 수트 멋을 선보였다. 지루한 일상 속 나만의 개성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반기운 트렌드가 아닐 수 없다.

# for Women & Men

각자만의 방식으로 선보인 새로운 스타일과 여전히 유지되거나 재해석되는 여러 트렌드가 혼재한 이번 시즌은 지금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듯하다.

## Trompe l'oeil

하이패션에서 주로 사용되던 트롱프루유 기법은 프랑스어로 '눈을 속이다'라는 뜻. 즉 착시 현상을 이용해 실제와 같은 생생한 효과를 내는 미술 기법이다. 이번 시즌엔 주로 보테가 베네타나 로에베에서 즐겨 사용하던 이 기법이 주를 이뤘다. 구겨진 셔츠처럼 모양이 감한 소재를 활용한 룩을 선보이기도 하고 로에베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재킷과 셔츠 같은 형태 그대로를 활용해 룩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프라다, 아크네 스튜디오 등에서 트롱프루유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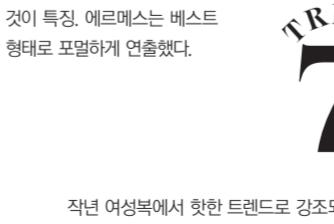
PRADA

TREND 8



HERMÈS

TREND 9



DIOR

작년 여성복에서 핫한 트렌드로 강조되었던 폴로 티셔츠가 2025년 남성복으로 옮겨 왔는데, 소재와 컬러가 더 다양해지면서 눈을 즐겁게 했다. 프라다와 로에베에서는 상큼한 컬러로 물에 슬립하게 붙는 타이트한 폴로 티셔츠를 제작했다. 프라다는 실제 옷깃이 아닌 프린팅으로 출력해 재미를 주었고, 펜디는 사이드로 기울어진 디자인의 폴로 칼라 니트를 선보였다. 구찌는 메시 니트 소재의 폴로와 스트라이프 패턴의 비치 타월 소재 폴로 셔츠로 시원한 느낌을 더했다.

## Polo Fever



LOEWE

## Block Core

남자를 지칭하는 속어인 '블록(block)'과 평범함을 염으로 승화한 패션 용어 '\_normcore(No normcore)'를 합한 단어 '블록코어(Blockcore)' 트렌드는 최근 스포츠 브랜드와 하이패션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으로 급부상했다. 그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축구 유니폼을 일상복처럼 입는 것을 총총 볼 수 있었다. 올해 역시 이 트렌드가 계속될 예정이다. 루이 비통에서 선보인 축구 선수 유니폼 같은 디자인과 미우미우에서 선보인 체대생 유니폼 스타일을 참고하자.



TREND 9

LOUIS VUITTON

## Pastel Mood

사람들은 늘 패션과 컬러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헤소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녀왔다. 이번에도 역시 남성복에 침투한 로맨틱한 컬러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듯 남성복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퍼스텔컬러가 다수 눈에 띄었다. 퍼스텔치오 그린이나 레몬 커드, 그레이시 펑크, 베이비 블루 등 농도와 채도에 따라 더 다양해진 퍼스텔컬러를 보는 재미가 있다. 비비드한 컬러가 아닌 은은하게 다가온 컬러들은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의 실루엣과도 이질감 없이 녹아드는 특징이다. 에디터 성정민

H 아플리케 자수 디테일을  
가미한 둑근 셰이프의 더스티  
블루 호간 86er 남성 스니커즈  
65만원, 데일리 웨어에 악센트를 주기  
좋은 레드 스웨이드의 호간 86er  
여성 스니커즈 65만원 모두 **호간**.

바다 표면에 반사되는 헛빛을 라인스톤  
장식으로 표현한 호간 워시드 데님 여성  
재킷 77만원, 스웨어 실루엣과 샌드 컬러  
등 시즌리스 아이템으로 충분한 나파  
레더 소재의 호간 뱀 뱀 바울레토(Bam  
Bam Bauleto) 백 1백만원 모두 **호간**.



# The Spotlight

이탈리아 비치(beach) 파티에서 영감받았다. 나른한 듯 분방한, 쉬이 시선을 뗄 수 없는 호간 2025 S/S 컬렉션의 유쾌한 리듬 속으로!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버킷 백과 솔다백, 크로스 백으로  
연출 가능한 호간 호크 호보  
(Hocket Hobo) 백 90만원,  
보 장식이 귀여운 메탈릭 실버 컬러  
호간 H-밸레리나 플랫 슈즈  
58만원 모두 **호간**.



블랙 H 로고와 볼드한 밀칭, 명료한  
디자인이 조화로운 호간 하이파이트  
(Hyperlight) 남성 스니커즈  
75만원, 메탈릭 실버 H를 큼직하게  
새긴 호간 하이파이트(Hi-F) 여성  
스니커즈 78만원 모두 **호간**.  
에디터 김하얀

문의 02-540-0523



# Time of Victory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타임키퍼 자리를 지켜온 오메가. 약 1년 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열릴 2026 동계 올림픽에서도 함께할 예정이다.  
오메가는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을 선보이며 또 한번 이 순간을 기념한다.

오메가는 1932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부터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했다. 본, 초 단위로 승리를 결정짓는 올림픽에서 타임키퍼 기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타임키퍼를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왔다는 것은 위치메이킹 기술력에서 그 어떤 브랜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약 1년 뒤에 열릴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 올림픽에서도 오메가는 공식 타임키퍼로 함께할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메가에서는 아이코닉 컬렉션인 '씨마스터 37mm'를 밀라노 코르티나 2026에 디션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 모던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담은 위치

오메가의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은 아이코닉한 씨마스터 디자인의 클래식한 요소와 현대적인 장인 정신이 결합된 타임피스다. 18K 문사인™ 골드 소재의 대칭형 케이스에 독특한 육각형 크라운을 매치해 세련된 비

1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는 씨마스터 37mm 2 모던한 화이트 그랑 피 에나멜 디자인에 조각된 18K 문사인™ 골드 아워 마커와 디아몬드 폴리싱 및 패싯 처리한 18K 골드 도핀 핸즈가 돋보인다. 3 폴리싱 처리한 케이스 백에는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 로고와 올림픽 엠블럼을 새겨 스페셜 에디션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4 오메가 로고와 완성한 폴리싱 처리한 18K 문사인™ 골드 버클.  
5 육각 형태에 오메가 로고로 포인트를 부여한 무시버튼.

율을 자랑하며,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12시 방향 오메가 로고 등 오리지널 씨마스터 올림픽 타임피스를 연상시키는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가 돋보인다. 디아얼은 깔끔한 화이트 그랑 피 에나멜로 완성했고, 아워 마커는 조각된 18K 문사인™ 골드로 선보인다. 이는 둘째 올림픽의 꽃인 피겨스케이팅 경기의 페스팅을 연상시키는 듯 하다. 디아몬드 폴리싱 및 패싯 처리한 18K 골드 도핀 핸즈는 시그너처 씨마스터 타이포그레피와 미닛 트랩을 포함한 그레이프터 피 에나멜로 처리한 전사 마킹과 조화를 이룬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를 연상시키는 듯한 브라운 가죽 스트랩으로 완성했으며, 이와 어울리는 가죽 암깁과 폴리싱 처리한 18K 문사인™ 골드 버클로 선보인다. 매우 차가운 느낌을 풍기는 데다 깔끔하고 모던한 이 위치는 밀라노의 대범하고 현대적인 감성과 어딘가 닮은 듯 보이기도 한다. 역시 폴리싱 처리한 케이스 백에는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 로고와 올림픽 엠블럼을 새겨 스페셜 에디션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마치 금메달의 영광을 안은 듯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한다. 기술적으로도 뛰어지지 않는다. 내부에 탑재한 셀프와인딩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7은 스위스 연방계측기관(METAS)의 인증을 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통해 오메가의 탁월한 정밀도와 성능, 자기 저항성을 입증한다. 오메가의 사장 겸 CEO 레이날드 애슬리만(Raynald Aeschlimann)은 "이 시계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이후 오메가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타임피스입니다"라며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씨마스터 37mm의 디자인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유지되었지만 오메가의 타임키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러한 일관성과 꾸준함 이면에 존재하는 지속적 혁신과 발전이 오메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원동력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스페셜 에디션인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성정민



“  
오메가의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은  
아이코닉한 씨마스터 디자인의 클래식한 요소와  
현대적인 장인 정신이 결합된 타임피스다.”

버진 올 체크 재킷 5백70만원,  
실크 프린트 셔츠 가격 미정, 코튼  
팬츠 2백10만원 모두 발렌티노.  
카프 스키н 소재의 밸레 뒤 루아 슈즈  
1백39만원 발렌티노 가라비나.

(왼쪽) 디올 앤 헐턴 넬 화이트 코튼  
블렌드 인타샤 스웨터 베스트  
3백30만원, 브라운 스트라이프  
울 렙 팬츠 3백80만원 모두 디올 맨.  
(오른쪽) 베이지 버진 올 라넨 코트  
7백20만원, 레지스트 프린트 라인  
재킷 6백20만원, 베이지 톰 가격  
미정, 베이지 버진 올 라넨 버뮤다  
쇼츠 2백90만원 모두 디올 맨.



스타일리시한 그 남자의 봄, 실루엣과 프린트에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왼쪽) 코도반 레더 재킷, 화이트  
레더 칼라, 그레이 올 맨즈, 프린지  
몽크 스트랩 레더 슈즈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오른쪽) 엘로 올  
스웨터 가격 미정, 세로문 프린트  
코튼 맨즈 가격 미정, 엘로 컬렉션  
리나일론 및 스웨이드 엘라스틱  
스니커즈 1백36만원 모두 프라다.



(왼쪽) 스트라이프 인타르시아  
반소매 모크-터틀넥 코튼 스웨터  
1백83만원, 라넨 패브릭 맨즈  
1백66만원, 그린 컬러 슈즈 가격  
미정 모들체엔가비나.  
(오른쪽) 스트라이프 인타르시아  
코튼 니트 풀로 셔츠  
2백70만원, 라넨 패브릭 맨즈  
1백74만원 모두 모들체엔가비나.

구찌 앰보스 및 라이트 블루 컬러  
디테일의 브라운 레더 재킷, 프린트  
디테일의 코튼 셔츠, 라이트 다크  
그레이 을 트윌 소트 팬츠, 실버 홀스빗  
마감 디테일의 블랙 레더 부츠, 라이트  
브라운 코튼 삭스 모두 가격 미정 구찌.



울 레인 시스템 재킷, 캐시미어  
온리 더블 셔츠, 을 & 리넨과  
실크 소재 폴로 스웨터,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왼쪽) 오버사이즈 러더 블레이저  
가격 미정, 브라운 코튼 셔츠  
가격 미정, 컴포트 러너 긴 95  
만원 모두 토즈. (오른쪽) 쇼트  
트렌치코트 8백60만원, 브라운 하프  
집업 니트 가격 미정, 스트레이트  
핏 맨즈 긴백1만원 모두 토즈.

샌드 쌍글브레스트 레인코트, 블랙 울  
개버딘 소재의 새틴 사이드 스트라이프  
디테일의 테일러드 컷백 턱시도 팬츠,  
맥퀸 T-바 로퍼 모두 가격 미정 맥퀸.

헤어 Ryunoshin Tomoyose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이강민(Jennifer Model),  
Ren(Exclusive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프라다 02-3442-1830  
토즈 02-3438-6008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비니 02-2015-4655  
구찌 02-3452-1921  
맥퀸 02-6105-2226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로로피아나 02-6200-7799  
디올 맨 02-3280-0104



# Scents of Spring

매서운 바람 뒤에 한층 더 극적이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봄의 향수.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겔랑 라 빛나는 오 드 뚜왈렛  
상큼한 플로랄 향의 정서. 레몬과 베르가모트 향이 그리스산 장미와 블랙커런트를 거쳐 화이트 앤버와 마스크 향으로 마무리된다.  
50ml 16만1천원. 문의 080-343-9500

버버리 뷔티 가디스 EDP 세트 브랜드  
시그너처 아이템인 모아 인든 세트 중 하나. 향수, 보디로션(75ml)과 펜 스프레이(10ml)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바닐라와 향긋한 라벤더 향이 만나 봄 특유의 산뜻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100ml 27만5천원(세트). 문의 080-850-0708

지방시 뷔티 드 지방시 데조베이상 소니카 향을 더한 카다멈과 이탈리언 레몬으로 원성한 싱그러운 시트러스 향이다. 같은 컬렉션 중 하나인 아코드 파티큘러의 우디 마스크 향과 레이어링하면 색다른 시트러스 향을 즐길 수 있다. 100ml 42만원. 문의 080-801-9500

디올 뷔티 라 클렉시옹 프리베 브아  
탈리스망 오 드 퍼퓸 강렬한 시더우드가 코끝을 스치자마자 풍부한 향의 바닐리가 존재감을 드러낸는데,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난 듯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00ml 45만원. 문의 080-342-9500

조 말론 런던 타이프 로즈 콜롬 인텐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담은 듯 달콤한 타이프산 장미 향이 은은하게 번져면서 쌔祓한 커피와 따뜻한 앤버 향이 두드러진다.  
50ml 21만8천원. 문의 02-6971-3228

딥티크 리미티드 오르페옹 오 드 퍼퓸  
브랜드 청립자 3명이 모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영감을 나누던 1960년대 재즈 클럽 오르페옹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각세일을 즐기는 사람, 테이블의 나무 낸새를 통가빈과 시더우드, 주니퍼 베리 노트로 표현했다.  
30ml 16만5천원. 문의 02-3479-6049

구찌 뷔티 피오리 디 네롤리 오 드 퍼퓸  
네롤리 잎과 꽃 향에서 시작해 은은하고 따뜻한 시더우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렌지 꽃봉오리를 상징하는 낭만적인 보틀도 인상적.  
100ml 51만2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김하안

# Lux for Skin

탁월한 효과는 물론 향, 텍스처 등 모든 면에서 궁극의 스킨케어 리추얼을 선사하는 샤넬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수블리마지 라인에서 신제품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와 르 세럼을 출시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전례 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제품답게 피부 자체에 활력을 부여할 뿐 아니라 본연의 힘을 되찾아주는 데 집중한다.

## 최상의 포뮬러가 이끌어내는 피부 활력

샤넬 연구소는 피부 강화에 놀라운 효과를 전하는 강력한 성분을 농축한 고유의 포뮬러를 개발해냈다. 샤넬의 혁신적인 활성 성분인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친 바닐라 플래너풀리아는 오랜 시간 정교하게 진행되는 모든 공정을 통해 최초 원료보다 40배 더 농축된 활성 분자를 만들어낸다. 덕분에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풍부한 활력을 충전하고 피부의 근본적 힘을 강화한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 수블리마지에는 이 핵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특히 샤넬의 베스트 셀러이자 수블리마지 라인의 입문 아이템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분으로 출시되었다. 새롭게 선보이는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피부 구조와 유사한 바이오미메틱 지질 성분을 포함해 빠르게 스며들며 피부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을 준다. 수블리마지 르 세럼에는 특별 활성 성분인 솔리라고 추출물과 리포펩타이드를 추가했다. 이 두 제품은 모두 샤넬 연구소에서 정의한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에 대한 지표인 수분감, 편안함, 주름, 탄탄함, 균일함, 피부 강화와 광채에 집중 적용한다. 또 사용 직후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사용할수록 피부 톤과 결기 균일해진다.

##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리추얼

고귀한 아름다움을 되찾는 과정은 단연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인 샤넬의 수블리마지로 귀결된다. 더 강력해진 수블리마지 르 세럼과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모든 여성은 원하는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벨벳처럼 매끈하고 산뜻하게 발려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하는 수블리마지 르 세럼은 수블리마지 스킨케어 리추얼의 다른 제품을 바르기 좋은 상태로 피부를 정돈해주며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풍성하고 부드럽게 스며들어 다양한 감각을 만족시킨다. 두 제품 모두 특별하게 디자인된 보틀로 깔끔한 라인이 특징이며 진귀한 클래식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화장대에 두고 보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선사한다. 수블리마지 르 세럼과 르 마스크는 환절기와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피부 건강성이 떨어지기 쉬운 때, 피부 본연의 활력과 힘을 되찾아 아름답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 마치 스파에 와 있는 것같이 고급스러운 케어를 완성해 줄 것이다. 문의 080-805-9638 에디터 성정민

샤넬 수블리마지 르 세럼 30ml  
74만4천원, 리필 66만2천원

샤넬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 50g  
36만5천원, 리필 31만원





